"복지·청소년·교화불사 두마음 모았지요"

법 현 스님(태고종 총무부장) **법 현 스님**(쌍계사 주지)

BBS-대부도 전화인터뷰 인연

자문 구하며 각별한 정 나눠

동명이인(同名異人)이 많은 세상. 출세간의 수행 행로에도 동명이인의 특별한 만남이 있다.

태고종 총무부장 법현(法賢·39)스님과 대부도 쌍계사 주지 법현(法賢·48)스님은 나이나 은사 소속종단도 다르다. 한글로 법명이 같을 뿐. 그러나 두 스님은 각별한 인연을 함께 쌓아가는 도반이다.

두 스님은 전화를 통해 처음 만났다. 작년 가을 불교방송의 심야프로 '살며 생각하며'를 진행하던 서울 법현스님이 프로그램진행과 관련 대부도 법현스님과 아주 기억에 남을 전화 인터뷰를 한것이다. 대부도 법현스님은 당시 동지소년의 집을 개원한 직후였다. 한 청취자와의 상담 내용이 오갈데 없는 고아 20여명을 절에서 기르던 스님이 아이들의 집을 지은 이야기와 그곳 아이들에게 많은 불자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마침 담당 PD가 대부도와 전화 연결이 돼 있다는 사인을 보냈다. 인연이 닿을래서인지 그날 진행자 법현스님과 상담자 그리고 대부도 법현스님은 전화를 통해 나누며 사는 삶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그후 12월에 두 스님은 다시 전화로 재회했다. 아침프로 '불국토의 아침'으로 옮겨 진행하던 서울 법현스님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부도의 아침을 노크 했던 것. 대면은 없었으나 두 스님은 매우 친밀감을 느꼈다. 얼마후 서울의 법현스님은 성도절을 맞아 창신동 원각사 신도와 어린이 50여명을 인솔해 대부도로 갔다. 비로소 두 스님 상봉을 하게 된 것인데 첫 눈에 전화상의 친밀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복지사업과 청소년 교화사업에 대한 두 스님의 의견이 같을 뿐 아니라 앞으로 수행 삼아야 할 과제까지도 닮아 있음을 확인한 두 스님은 10년의 나이차이보다 훨씬 두터운 도반의 정을 갖게 됐다.

요즘 두 스님은 자주 만난다. 하루 걸러 한번쯤은 전화통화를 한다. 대부도 법현스님이 소년범들을 수용, 사회교화교육을 시키는 수탁기관의 운영을 정부로 부터 인가 받고 동지소년의 집을 넓히는불사에 분주하기 때문이다. "행정적 경험이나 불사추진에 경험이 적다보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럴때마다 서울로 전화를 해 법현 스님께 자문을 구하죠." 대부도 법현스님은 서울 법현스님에게 일을 배울뿐 아니라 수탁기관의 운영 프로그램등에 대한 자문도 계속할 생각이다. 속가 나이로 아홉살 아래인 서울의 법현스님은 "청정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스님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즐겁다"며 두 스님은 법명이 같은 인연 보다 훨씬 커다란 도반의 인연을 가꿔갈 것이라고 전했다.

임연태 기자



◇대부도 법현스님(사진 왼쪽)과 서울 법현스님은 복지·청소년교화사업등에 주력하는 일도 닮았다.

우리는 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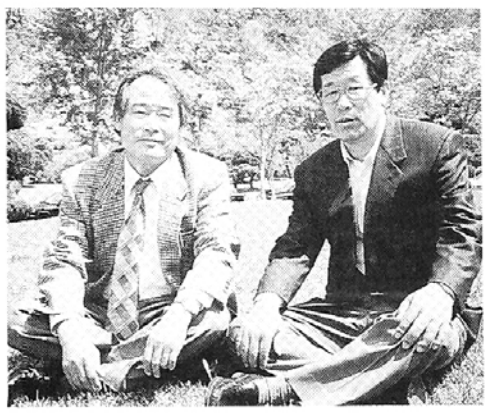
만남은 아름다운 일이다. 만남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한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얘기는 수행현장에서나 신행정진의 현장에서나 아름다운 것이다. 법명과 수행방편이 같은 두 스님의 얘기와 신행과 교화사업에 마음을 모아 일생을 함께하는 재가불자의 얘기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들어본다. 〈편집자 주〉

41년 두터운 인연 환경·장학사업 한뜻

홍순만씨(마산불교청년회후원회장) **이광석씨**(마산문인협회장)

마산불교학생회지 '설산' 창간 멤버

연극·불청운동·바다살리기 등 나서



◇불교학생회 도반 홍순만씨(사진 왼쪽)와 이광석씨는 평생도반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법 홍포에 전력하고있다.

이제는 초로(初老)의 희끗희끗한 머리에 회갑을 맞이한 홍순만씨(61·마산불교청년회 후원회 회장)와 이광석씨(61·마산문인협회 회장). 두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인연을 맺고 사바세계를 화두삼아 함께한 지도 올해로써 41년째다.

두사람은 전쟁의 상흔이 도처에 깔려있던 1955년 마산상고 재학시절, 마산불교학생회지인 〈설산(雪山)〉을 창간하면서 만나게 됐다. 30여명 회원으로 창립한 마산불교학생회의 주도적 멤버였던 두사람은 '이성에 투철한 청년학도의 진리에의 탐구욕'을 〈설산〉의 창간 취지로 내세우고 불법홍포에 나서는 한편 졸업후에는 마산불교청년회를 조직해 이광석씨가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당시는 불교 정화운동이 한창이었던 때라 절집안은 하루라도 바람잘 날이 없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박원호씨와 함께 두 사람은 불교개혁에 일조를 하기 위해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지옥도'라는 이름으로 각색해 무대에 올려 대성황을 거두기도 했다. 마산 시민극장, 제일극장 등에서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공연한 '지옥도'를 보고 많은 학생, 청년들이 불교에 귀의하기도 했다. 그 시절 불교학생회와 청년회 활동은 상당히 어려워 참석 학생들의 학교 훈육주임 교사가 지켜보고 나서야 법회를 인정해 주는 정도여서 그들의 연극공연은 더단한 불사(佛事)였다고 자랑한다.

요즘 두 사람은 마산 주변 '바다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에 입각하여 하루가 다르게 오염되어 가는 바다를 예전의 모습대로 살려보자는 것이다. 4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는 불자들도 많이 참석하여 타종교에 비래 환경운동에 뒤쳐져 있는 불교의 위상도 높일 수 있었다.

불교학생회를 시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불교청년회를 거쳐 지금은 후원회 회원으로서 후배불자 양성과 지도에 여념이 없다. 성덕암에서 열리는 학생회와 청년회 법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후원회 주관하에 대원불교대학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보조하기도 하는 등 불자인재 육성에 열심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안타까운 일이 있다. 홍순만씨는 "해가 바뀔수록 학생, 청년불자의 수가 계속 줄어들어 걱정스럽다"며 폐간된 〈설산〉을 복간해서라도 젊은 불자를 많이 길러내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마산=박병근 기자

만 화

法句經 법구경

* 코끼리의 장 *
싸움터에서
화살을 맞고도
참고 견디는
코끼리 처럼

이 향 원



btn캠페인① 불교 TV시청자가 됩시다

부처님을 자주 뵈면 부처님이 됩니다

불교TV! 부처님을 매일만납시다

불교TV를 보면 불교를 알게됩니다.
불교TV프로그램 하나하나에는
우리민족 정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불교문화전통의 짙은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미소 그윽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이제 불교TV영상을 통해 만나보십시오.

케이블TV 설치비 50%할인권 올드립니다

- 불교TV가 불자들에 한하여 케이블TV 설치비 50% 할인권을 드립니다.
- 케이블TV신청시 할인권을 제시하면 단독주택은 4만원에서 2만원으로,아파트는 6만원에서 3만원으로 설치비를 할인해 드립니다.
- 할인권은 96.5.31까지 유효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불교TV ☎(02) 3270-3365로 문의하십시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3270-3498

케이블TV 설치 문의처
■ 서울지역 강남케이블TV(강남구)518-3000 강동케이블TV(강동구)4747-115 강서케이블TV(강서구) 3663-1414 구로케이블TV(구로 금천구)830-8300 관악케이블TV(관악구)877-5000 노원케이블TV(노원구)934-3366 동대문현합방송(동대문구) 215-0114 동부케이블TV(중랑구)433-2121 동서울케이블TV(성동 광진구)498-6000 동작케이블TV(동작구)824-8080 마포케이블TV(마포구)717-1125 미래케이블TV(도봉 강북구)999-5555 북부케이블TV(성북구)942-0001 서서울케이블TV(서대문구)365-0101 서초케이블TV(서초구)525-8852 송파케이블TV(송파구)318-2700 우리종합유선방송(송파구)418-3000 은평케이블TV(은평구)388-8000 중랑케이블비전(종로 중구)753-6781~3 한강케이블TV(영등포구)634-3200 한국통신케이블TV(일원구)645-2222 부산지역 금정케이블TV(금정구)515-6140 낙동케이블TV(강서 사상 북구)326-9112~6 동남케이블TV(남 수영구)620-5000 벡컴케이블네트워크(부산진구) 640-8585 부산케이블TV(동래 연제구)555-0300 서부산케이블TV(서 사하구)293-0300 중부산종합유선방송(중 동 영도구)412-0666 해운대케이블TV(해운대구)746-1122 대구지역 금호케이블TV(북구)953-4000 동구케이블방송(동구)985-7777 대구케이블비전(중 남구) 656-5555 서대구케이블TV(서구)567-6000 수성케이블방송(수성구)768-8888 푸른방송(달서구)551-2000 인천지역 남동케이블TV(남동구)422-4757~9 남부종합유선방송(연수 남구)875-0307 북인천케이블TV(부평 계양구) 551-9300 서인천케이블TV(서구)582-3211~4 서해종합유선방송(중 동구)761-8888 광주지역 광주케이블텔레비전(동 북구)512-4433 광주케이블TV(네트워크 서 남 광산구) 370-5700 대전지역 대전케이블TV(대덕 동구)673-3322 한밭케이블TV(중 서 유성구)222-8350~1 기타지역 수원방송국(수원)257-4011~9 (주)강원케이블TV(춘천시 홍천 철원 화천 양구군) 242-2131~2 청주종합유선방송(청주시 청원군) 271-3000 천안케이블TV(천안시 천안군)551-9991~8 전주케이블TV(전주시 완주군)250-6500 서남방송(목포시 신안 무안군)76-7777 경북케이블TV(포항시 울릉 영일군) 251-7777 경남케이블TV(창원 진해시)67-6900~4 제주케이블TV(제주시 북제주군)41-7777